현대불교신문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 필진을 선보인다. 문화, 명상과 같은 대중성이 있는 분야의 강화와 함께 교리, 선종사 등 연재의 전문성을 높여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다. 이에 신년 새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보·사상·기행 등 연재 전문성 강화

성보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사찰 전각에는 그 성격에 맞는 각각의 부처들과 협시보살, 호법신 등이 그려진 불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현재와 같은 도성으로 확립됐는지를 알 수 없다.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연구자인 조성금 교수가 중앙아시아 지역 석굴에 그려진 벽화에서 한국불화의 기원을 찾아 독자들에게 전한다. 불화의 원류를 살피면 사찰불화를 볼 때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기록, 유물, 유적에 의존한다. 1,600년을 이어온 이 땅의 불교사를 살펴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잊히거나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그 중에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애써 무시하고 싶은 것들도 있다. 연재를 통해 불교 안팎의 유물이나 유적을 소재로 우리 불교사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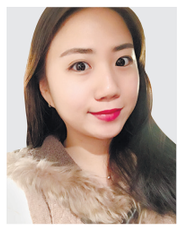
기행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기행'



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 강사인 현견 스님이 들려주는 중국의 선문화 기행이다. 선사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선사(禪史) 전반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과 일화, 선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연재는 2018년 본지에 연재됐던 '중국 선문화 기행'의 연장으로 지난 연재에서 다하지 못한 선종사를 통해 우리의 선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희의 '유학생이 본 미얀마'



'테라와다 불교의 정수'로 알려진 미얀마. 그간 한국불교계서는 위빠사나 수행이나 쉐다곤 파고다 등 단편적인 미얀마 연재가 많았다. 이에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얀마 양곤대 오리엔탈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과정을 밟는 최재희 씨가 유학생이자 한국인의 눈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얀마 문화 속 불교를 맛깔나게 소개한다. 그는 현재 동남아서부협의회 미얀마 지회 청년위원 19기로도 활동 중이다.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인류는 한동안 바위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다. 암각화는 우리 선조들의 염원이 담긴 첫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인 일감 스님은 15년 전 장기리 암각화를 처음 보고 암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래 전의 사람들이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마주하는 일에서 사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암각화와 나눈 일감 스님의 색다른 명상의 시간을 암각화와 촌철의 글로 소개한다.

교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임제록〉은 어록 중의 어록으로 불린다. 일찍이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끼따로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는 등 승가교육에 헌신해온 양산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이 어록 중의 어록 〈임제록〉에서 가려 뽑은 또 하나의 〈임제록〉이다.

배광식의 '세상 속 경전읽기'



본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2014년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는 등 쉼 없이 신행과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배광식 교수가 들려주는 세상과 경전 이야기이다. 필자가 평소 경험하고 사유했던 세상사를 통해 떠올리게 된 부처님 말씀을 깊은 불심으로 담담하게 지은 산문이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인 배 교수는 〈천개의 연꽃잎으로 피어나리라〉 등을 출간했다.

문화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정교분리를 외치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종교를 진정한 종교라 할 수 있을까. 정치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렇기에 삶과 함께하는 종교일수록 정치에 대한 입장이 명쾌하다. 붓다의 정치학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정치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재다. 정치가 혼란한 지금 부처님 가르침으로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읽어보자.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앞서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와 '초의 스님 전상서'로 독자들에게 차와 얽힌 역사 문화 등을 전한 바 있는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이번에는 고려시대 차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당시 문인들의 차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이 차 한 잔을 얻기 위해 기울인 지혜를 엿본다. 특히 고려 사람들이 꿈꾼 차의 세계를 짚어가며 오래 전 과거로 돌아갈 예정이다.

인물

변택주의 '다시 읽는 법정 스님'



변택주 작가는 길상사서 펼쳐진 법정 스님 법석 사회를 12년간 보며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 들어가 세상과 자연과의 어울림을 배웠다. 그는 '배운 것을 세상에 돌리지 않으면 제구실 하지 않는 것'이라 한 법정 스님 말씀에 따라 꼬마평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다니고 있다. '다시 읽는 법정 스님'은 법정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가르침에 대해 다시 새겨보는 기회다.

신행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1977년 부산 연꽃모임을 만들어 쉼 없이 이끌고, 부산 지역의 불교발전에 앞장서온 이대원성 보살은 오랜 세월 불연속에서 많은 신행의 공덕을 쌓아왔다. 특히 많은 선지식들과의 인연은 그의 공덕 중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암 스님을 비롯해 일타·법정·운허·지관 스님 등과 대원성 보살이 주고받은 선식들의 서신을 격주로 소개한다.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선지식들이 남긴 서신 속 글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명상

최훈동의 '마음사용설명서'



50년간 불교 공부와 명상 수행을 하고 38년간 정신치료를 해온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련을 마친 정신과 의사이다. 마음사용설명서에서는 정신의학과 심리학 등과 연결해 우리의 마음쓰임에 대해 살피며 이른바 사용법을 제안한다. 또한 불교명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유행하는 명상문화의 방향까지 제시한다.

용수 스님의 '아침 편지'



매일 아침 8시 30분, 어김없이 장문의 한글과 영어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달된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수 스님의 '아침명상' 글이다. 매일 아침 1000여 명의 대중이 용수 스님의 글로 아침을 시작한다. 잠언 형식의 짧은 글은 한번에 읽기보다는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전처럼 가끔씩 꺼내보게 된다. 용수 스님의 아침을 깨우는 맑은 글을 독자 여러분을 위해 지면으로 다시 소개한다.

오피니언 칼럼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조계종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마음치유에 관한 생활 에세이다.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치유를 기쁜 이들에겐 행복이 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원포교일기'

일산병원 지도법사 지인 스님이 직접 병원에서 포교한 생생한 포교기록이다. 환우들을 보살피며 얻은 고뇌 극복의 지혜를 보자.



김형중의 '설법론'

김형중 前동대부여고 교장의 40여년 설법에 대한 지론이다. 수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한 설법노하우를 얻자.



경자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